

#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## 1. 기본정보

파견국가	필리핀	파견도시	수빅
파견대학	바탄반도주립대학	기간	2018.12.24. ~ 2019.1.17.

## 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바탄반도주립대학 TIMES-SLC 프로그램에 한달 간 참여하였다. 필리핀 수빅에 위치하였다.
수업	수업은 오전 8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에 모든 수업이 끝나는 일정이었다. 총 8개의 교시로 그룹 수업과 1:1 수업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룹은 사전 진행했던 테스트 결과에 따라 나뉘어졌고 교재 또한 개인의 성적에 맞춰 다르게 주어져 적절한 수업 난이도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. 그룹 수업은 토익 스피킹, Face to face, MMC의 교과목이 있고, 개인 수업은 Reading과 Vocab으로 구성되어 있다. 교과목 모두 영어회화와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으로 실질적인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. 특히 1:1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세심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모르는 부분을 꼼꼼하게 알려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.
Activity	액티비티는 매주 목요일 오후 수업 마지막 두 교시와 주말에 진행되었다. 평일 액티비티는 주로 체육대회, Movie Day 등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주를 이루었고 주말 액티비티는 요트 투어, 리조트, 수빅 투어 등 평일 액티비티 보다 활동적이고 필리핀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었다.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, 필리핀 문화를 체험했다.

## 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한달 중 비가 내린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쾌적한 날씨였다. 생각보다 너무 덥지도 않고 학습하기 딱 좋은 선선한 날씨였다. 가끔 비가 내려도 열대 스콜성으로 잠깐 내리다가 곧 맑게 개어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.
안전	기숙사 내에서 주류가 절대 반입 금지이다보니, 음주 사고에 있어서 안전했다. 또한 기숙사 내 규칙이 엄격한 편이어서 안전면에 있어서는 최고였다. 시설 밖에서 따로 관광할 때도 현지인들이 호의적이었고 치안도 괜찮았다.
숙소	학교기숙사(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) 홈스테이( <input type="checkbox"/> ) 외부 숙소( <input type="checkbox"/> ) 기타( <input type="checkbox"/> ) 숙소 시설은 낙후되어있는 면이 있었다. 특히 화장실에 문제가 많았다. 물이 안나오기도 하고, 온수가 자주 안나왔다. 수도가 터져 물이 넘치는 일도 있었다. 하지만 바로 문제를 해결해주어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.
식사	학교식당( <input type="checkbox"/> ) 홈스테이( <input type="checkbox"/> ) 외부식당( <input type="checkbox"/> ) 기타( <input type="checkbox"/> ) 학교 식당에서는 주로 점심 식사만 했다. 한식 메뉴로 나오고 김치가 항상 나온다는 점이 좋았다. 다양한 메뉴가 나와서 좋았고 맛 또한 한국에서 먹던 음식들과 똑같아 즐겁게 식사 할 수 있었다.
교통	시내와 거리가 조금 있지만 택시와 FB를 통해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. FB와 택시는 쉽게 탈 수 있어 이동수단에 큰 문제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.

#### 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 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, 유학허가증(SSP)		출국 전 사전 납부
현지 생활비	500000원	쇼핑, 식사
합계	500000원	

#### 5. 출국 전 준비사항

여권과 여권사진 여분, 여권 복사본, 가서 사용 할 노트북과 필기도구, 세면도구, 비상약, 젖어도 되는 옷들 필수

## 6. 본인 소감 및 평가

한 달이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즐거웠고,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게 느껴졌다. 교육 커리큘럼이 처음엔 힘들게 느껴졌지만 지내다보니 익숙해졌다. 수업 외의 액티비티 활동에서는 여러 장소를 관광할 수 있고,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. 평소에 경험하기 힘든 해양 액티비티가 특히 재미있었다. 선생님들은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셨고, 이해할때까지 천천히 설명해주셨다. 평소에도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. 힘든 일정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. 수업 내용은 실전 영어 회화와 토익 시험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어 좋았다. 특히 토익 스피킹 시간에 항상 모의 시험을 본 것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. 한 달 동안 별 탈 없이 공부하고 무사히 귀국하여 기쁘고,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긴 기간으로 다시 참여하고 싶다. 또한 다른 친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다.

## 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